



## “감기 조심하세요”... 50년 전통의 국민약

### 동아제약 ‘판피린’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되면 감기로 고생하는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감기약 브랜드로 동아제약 ‘판피린’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날씨가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오면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판피린 광고를 무의식 중에 떠올린다. 판피린은 50년 이상 된 장수 브랜드다.

판피린은 1956년 품목허가를 받고 1961년 첫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다. 1961년에는 알약이었다가 1977년부터 현재와 같은 크기의 병에 담긴 액제 형태로 변경됐다.

종합감기약 판피린 큐는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di-메틸에페드린염산염, 카페인무수물, 구아이페네신, 티페피딘시트르산염 성분이 함유돼 있다. 컷물, 코막힘, 기침은 물론 발



열, 두통 등 초기감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판피린 큐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 가능하며 약효 발현이 빠르다. 1병의 크기는 한 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 여행이나 외출 시 휴대성이 좋다. 판피린 큐는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판피린티 3정이 있다. 판피린티 3정은 2012년 국가에서 시행한 13종의 안전상비의약품 중 하나로 선정되어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카페인무수물로 구성되어 있다.

## FDA 승인받은 세계판매 1위 탈모치료제

### JW신약 ‘로게인폼’

JW신약의 로게인폼은 미녹시딜(5%)을 주 성분으로 하는 바르는 폼(거품) 타입 탈모치료제다.

제형 특성 상 흘러내리지 않아 필요한 부분에만 적정량을 도포할 수 있고 두피 흡수와 건조가 빨라 사용 편의성과 치료 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주 성분인 미녹시딜은 두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모낭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모발 생장 주기도 연장해 준다.

이 제품은 탈모치료제로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을 받았으며, 세계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출시된 최초의 거품 타입 탈모 치료 외용제다.

또 프로필렌 글리콜(PG)이 들어있지 않아 두피 자극이 적고, 여성 탈모 환자들도 1일 1회 도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스트의원 김경



복 원장은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콩, 야채류를 많이 먹고 인스턴트식품, 커피, 담배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또 탈모 진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외용제 치료를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머리를 감을 때에도 손톱을 쓰지 않으면서 머리카락과 두피를 세심하게 자극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탈모 증상이 보일 경우 초기에 탈모 치료 전문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로게인폼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디오스민’ 성분으로 치질 통증·출혈 개선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 동국제약 ‘치센’

동국제약이 2017년 출시한 ‘먹는 치질약’ 치센은 치질약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 인지도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치센은 2019년 치질약 시장에서 46.2%의 점유율을 차지해, 경쟁 제품들을 큰 차이로 앞섰다. 특히 전년 대비 40% 이상 급성장한 6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의 판도를 ‘먹는 치질약’ 위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치센은, 지난해 코리아리서치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최초 인지도가 34.2%로 나타나, 전년 대비 75% 성장하며 1위를 달성했다. 최초인지도란 소비자를 대상으로 처음 떠오르는 브랜드 1개만을 확인하는 조사 방법으로, 시장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확인하는 조사방법이다. 이번 조사에서 치질약 중 치센을 제외하고는 5% 이상의 최초 인지도를 나타낸 브랜드가 없어 시장 내



치센의 소비자 인지도가 확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센 캡슐’은 유럽에서 개발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구조인 ‘디오스민’ 성분의 치질 치료제로 혈관 탄력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염 작용을 통해 치질로 인한 통증, 부종, 출혈, 가려움증, 불편감 등을 개선해 준다.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센 캡슐의 성분인 디오스민을 2주간 복용했을 때 통증 및 출혈 등의 증상이 80% 이상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임신 3개월 이상의 임신부와 수유부도 복용이 가능하다.

## 15분내 인후염 증상 완화... 4시간 지속

### 동화약품 ‘모가프텐’

동화약품의 인후염 치료제 ‘모가프텐’이 간편한 복용법과 함께 빠르고 오래가는 통증 완화 효과로 소비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모가프텐은 진통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인 플루르비프로펜 성분으로, 인후염의 여러 증상을 복용 후 15분 이내에 완화시켜 환자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복용하는 트로키 제형이기 때문에 가글이나 스프레이에 비해 약물이 구강과 목에 오래 유지돼 증상 완화 효과를 더욱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제품을 녹여서 복용하는 동안 약물이 염증 부위에 지속적으로 닿기 때문에 약효가 4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모가프텐은 상큼한 레몬 맛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더한 트로키 제형의 치료제



로, 약 복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라도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순응도를 높인 제품이다.

목 통증 등 인후염 증상이 나타날 때 1회당 1개를 입안에서 서서히 녹여 염증 부위에 약물이 닿을 수 있도록 복용하는 것만으로 호흡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성인과 12세 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이 복용 가능하며, 필요시 3~6시간 간격으로 1일 최대 5개까지 최대 3일간 복용하도록 권장된다.

모가프텐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